



# 안전, 원칙과 기본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이경철 안전관리자

산업재해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방심하는 순간,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또한, 안전은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한다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전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은 늘 반복되어야 하며 이는 곧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재 | 임재근 기자

##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만능 기술자

이경철 안전관리자는 2000년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사하여 교육수련실과 QI팀(의료실관리팀)을 거쳐 현재 총무팀 근로복지파트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평소 기술정보와 공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기사 등 13개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지식을 쌓고, 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기를 즐겨하는 만능 기술자다. 그런 그가 안전관리 업무를 접하게 된 것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 총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전관리업무에 그를 적임자라고 생각한 직장동료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무로는 처음 접해본 그는 안전관리를 자기업무와 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일에 있어 기본이 있어야 성장과 향상이 있다는 믿음으로 원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병원, 많은 분야의 지식 습득이 필요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병원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모여 근무를 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일반 제조업과 구별된다. 안전관리자로서 그러한 지식 습득뿐 아니라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을 이해해야 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관리 부분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처음 안전관리자가 되었을 때는 방대한 교육자료를 만

● **중년의 가족**



부인(최현남), 딸(이소현), 아들(이대현)

드는 것이 어려웠으나 그런 노력들이 결국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하루하루 자신의 노력이 일조가 되어 안전사고가 없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큰 보람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서 안전이라는 직종이 그렇듯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타부서와의 마찰이나 불안정한 시설이나 행동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한 두 번이 아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고생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대로 넘어간다면 언젠가 그로 인한 사고나 불행한 일이 근로

자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 평소 그의 신념대로 안전은 바로 원칙이며 기본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발전이나 향상은 있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기본과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갈 때 더 나은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원칙과 기본은 더 나은 향상을 가져다주는 법, 모든 문명과 기술발전이 걸어온 개념임을 그는 강조한다.

**안전,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이 중요**

안전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다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임무라 할 수 있다. 완벽한 안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후관리가 불가항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최대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불안정한 상태(시설물 등)와 불안정한 행동부서 등을 사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사고예방 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기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요소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다 보면 관리자로써는 모든 위험을 알 수도 있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일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형식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대폭 줄여 나가고 있다.

**새로운 도전**

그의 올해 목표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안전관리자로 병원이 지역의 선도적 국립대학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가 없는 모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감염노출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위험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를 즐기는 그에게는 즐거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의 도전이 결국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 ☺

